

##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 대강절 세째주

오늘은 대강절 세째주입니다.

### 2. 12월 행사안내

12월17일 (토): Carcano감독 교회방문  
12월18일 (주일): PIM 강단교환 주일  
12월25일 주일 저녁, 성탄 축하 예배  
12월31일 송구영산예배

### 3. 12월 18일 PIM 강단교환 주일

12월18일(주일)에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김나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같은날 담임목사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 4. 흠티스 연합사역

어제 흠티스 연합사역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 한국학교 후원 바자회

한국학교후원 바자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습니다.

### 6. 토요 축구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7:30분에 뷔케넌 고등학교에서 축구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17일) 첫모임이 있습니다.

### 7. 교회학교

12월18일에 진저브레드 하우스(Ginger Bread House)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 8. 12월17일 Carcano감독 방문안내

11시 30분에 웨슬리 UMC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교회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9. 주중사역안내

이번주 주중사역은 세크미팅관계로 쉽니다.

### 10. 성경공부안내- 이번주 토요일 새벽예배후 6:30분부터 7:30분까지 있습니다.

##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12월11일	김숙진 권사	이수경 집사
		안광빈 최승희 김현덕
12월18일	홍윤기 권사	김숙진 권사
		최성보 김규현 배제임스
12월25일	임경희 권사	홍윤기 권사
		구자홍 김형기 윤문섭
01월01일	윤문섭 장로	임경희 권사
		김현덕 안광빈 최성보
<b>12월안내</b>	<b>김현숙 김은정</b>	<b>12월촛불점화</b>
		구경숙 안미나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http://www.fkumc.net) [fkumc@fkumc.net](mailto:fkumc@fkumc.net)

## 목회자 칼럼

### 고요함 그리고 평화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이지요. 기쁜 소식이 전해진 때는 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함을 뜻하는 독일어 ‘슈틸’(Still)은 ‘멈춰서다’(Stellen)에서 왔습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슈틸렌’(Stillen, 젖을 먹이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 젖을 배불리 먹은 아기가 비로소 고요한 법이니까요. 기쁜 소식이 전해진 때는 그렇게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시간, 상상할 만큼 가장 고요하다고 표현되는 그 순간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치적 해방 혹은 억압된 자유의 풀어주심을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심은 신앙적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응답입니다.

어제 흠티스 연합사역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했던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더 풍요로운 사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경험하는 이 사역에 새로운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봅니다. 새벽여명을 열고, 잠든 자들을 깨우고, 욕망과 헛된 꿈에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 소박한 나눔을 들고 나아가는 마음은 그만 큼 거룩한 듯 합니다.

섬김에는 긍정적이지만, 복지에는 부정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의미와 섬김의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섬김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삶이 곧 예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믿음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지, 곧 어렵고 힘든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은 바로 이런 섬김에서 비롯되어야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지나친 복자는 게으른 자들을 더 게으르게 한다고들 합니다.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하지만, 게으른자들이 아니라, 병든자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한번의 실수 혹은 잦은 실수로 빚어진 바극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자들이 오늘 함께 나눈 누가복음 3장에 속옷조차 없는 사람일수 있고, 먹을 음식조차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마음보다 우리들이 지녀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긴 마음입니다.

거룩한 기다림의 순간, 고요한, 침묵과 고요함이 가득한 순간 멀리 한줄기 빛이 고요함과 침묵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 빛이 어떤 이들은 고통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희망입니다.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냄에 피해다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쳐놓은 울타리에 하우적 대다 보면 결국 고요함, 그리고 한줄기 빛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스쳐가듯 놓칠수 있습니다.

신앙, 믿음, 고요함 함께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The First  
Noe)



지금 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을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32장 (통48장)

##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숙진 권사	

##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이수경 집사	눅3:7-18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 세례요한의 기다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에 대한 세례요한의 해석)

## 헌신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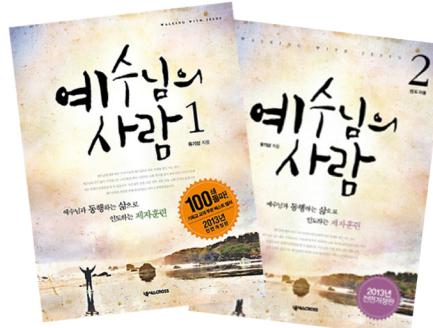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104장 (통104장)
❖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비울서신 강해
화-토 새벽 6시		예수님의 사람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30분	회의실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 질병기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 후레즈노 교회 주종사역을 위해
  - 김덕수 목사를 위해
  - Rev. Debra Brady감리사와 Bishop Minerva G. Carcaño를 위해
  - 12월 생일자: 김현덕 (12/24) 김형기(12/13) 이명길(12/24)
-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 지난주 현금 통계

주일현금	김혜진 윤문섭 임경희 임수호 무명
감사현금	이하늘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이수경 장영심 최승희 최미란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1,742.00



↑홈리스 연합사역

한국학교 바자회↓

